

여산송씨 일가 묘 출토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조형 특성

이 주 영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Jik-Ryeong-Gyoim Style of Men's Coat Excavated from the Yeosan Song's Family Tombs

Joo-Young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University

(투고일: 2008. 5. 13, 심사(수정)일: 2008. 10. 21, 게재확정일: 2008. 10. 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n's coat of Jikryeongkoim style that were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he Yeosan Song family.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xcept Dapho, all of the above mentioned coat were usually worn in the late 15th and late 16th centuries. Jikryeong and Cheolik were often worn in both of the centuries. But Aekjureum was often worn in the late 15th century and Jikryeong with no side hem and Jikryeong of Dopo style, in the late 16th century.

Generally, the men's coat of Jikryeongkoim style had a short fore part and a long rear part, doubled kalgit of banmokpan style and a narrow sleeve in the late 15th century, while fore and rear parts of the same length, kalgit of ordinary style and the sleeve of bean chaff shape in the late 16th century. In both of the centuries, the coat had the outer Seop that was doubled and used short, narrow coat strings to be adjusted.

Samgakmu was used to Jikryeong with no side hem and Aekjureum. Out of the coat, those which were lined or padded or quilted with cotten used Samgakmu, but those which were unlined didn't.

To adjust the coat, usually, a pair of short, narrow coat strings was used. The coat had the coat strings directly stitched on them or indirectly connected to them by means of the coat string hanger.

Key words: tombs of the Yeosan Song family(연산송씨 일가 묘),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Jikryeongkoim(직령교임), men(남자), coat(포),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특성)

I. 서언

2004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에 위치한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宋效商, 宋喜從, 忠州朴氏, 順興安氏의 복식이 수습되었다. 출토된 복식 중 포는 총 47점이고, 이 중 남자 포는 37점, 여자 포는 10점이다. 수습된 포는 옆자락 있는 직령(이하 '직령'이라 칭함)·옆자락 없는 직령¹⁾·단령·담호·도포형 직령·철릭·액주름·장의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一家의 유물이면서도 100여 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유물들이므로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착용된 포의 유형에 관한 고찰뿐만 아니라 부위별 형태와 구성법의 변화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실증자료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남자의 便服 포에는 단령·직령·담호·철릭·심의·액주름·장의·도포형 직령·도포·주의·창의 등이 있다. 이들 포는 모두 의형이 크고 풍성하여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조형 면에서 깃이 끝은지 둥근지, 옆자락이 있는지 없는지, 상하가 연결식인지 분리식인지, 겨드랑이 부위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옆트임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단령·직령·담호·도포형 직령은 모두 겨드랑이 아래의 옆선에 사각형의 옆자락이 달려 있다는 점이 전체 조형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깃·소매·옆자락 등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옆자락 없는 직령·액주름·장의·주의 역시 전체 조형면에서 서로 닮아 있지만, 깃·옆트임·옆무의 주름 등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이처럼 이들 포는 조형면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각각의 고유한 조형 특성으로 인해 서로 구별되고 있다.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남자 포는 직령·옆자락 없는 직령·단령·담호·도포형 직령·철릭·액주름 등 총 7종류이고, 단령을 제외하고 모두 직령교임식 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직령교임식 포제는 깃이 직령교임이라는 공통점 외에 옷길·깃·섶·소매·여밈·삼각무 등과 같은 다른 부위의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들 부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까지도 거의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령교임식 포제 전반을 대상으

로 공통으로 내재하는 조형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직령교임식 포제들 간의 형태면에서의 상관성과 변화양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먼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포 총 47점 중 직령교임식 남자 포 33점을 선별하여 포의 유형별로 조형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형 특성은 6종류의 직령교임식 포제에 공통으로 내재하는 조형 요소인 옷길·깃·섶·소매·여밈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조형 요소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직령교임식 포제들 간의 변화 순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조형 특성 중 각 포의 특징적인 부분, 즉 옆자락 있는 포(직령·담호·도포형 직령)의 경우 옆자락²⁾ 양식, 옆자락 없는 포(옆자락 없는 직령·액주름·장의)의 경우 무³⁾ 양식, 겨드랑이 부위의 주름 양식, 거들지 양식, 그리고 철릭의 경우 치마의 주름 양식 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향후 포 문화 전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묘주의 생몰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여산송씨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토대로 묘주의 생몰연대를 추정했다는 점과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착용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에 관한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II. 출토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개관

〈표 1〉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내역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참고하여 착용시기, 유형별 착용빈도, 염습제도의 용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착용시기

본 연구는 송효상, 송희중, 충주박씨, 순흥안씨의 묘에서 수습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에 출토복식이 발견된 여산송씨는 원윤공파의 후

<표 1> 여산송씨 일가 묘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유형별 출토 내역

묘주		송효상					송희종					송주박씨					순흥안씨					유형별 소계
추정 생몰연대 추정 착용시기		1430-1490 15세기후반					16세기 중-16세기 후 16세기후반					16세기 후-17세기 초 16세기후반					16세기 후-17세기 초 16세기후반-17세기전반					
의복명	용도	습의	소림의	대림의	산의	소계	습의	소림의	대림의	산의	소계	습의	소림의	대림의	산의	소계	습의	소림의	대림의	산의	소계	
		직령	·	1	·	2	3	1	2	·	2	5	·	·	·	1	1	·	·	·	·	·
옆자락 없는 직령	·	1	·	·	1	2	·	·	2	4	·	·	·	·	·	·	·	·	·	1	1	6
답호	1	·	1	·	2	·	·	·	·	·	·	·	·	·	·	·	·	·	·	·	·	2
도포형 직령	·	·	·	1	1	·	·	1	1	2	·	·	·	·	·	·	·	·	·	·	·	3
철릭	2	2	·	·	4	2	·	·	1	3	·	·	·	1	1	·	·	·	·	·	·	8
액주름	1	·	1	1	3	·	·	·	1	1	·	·	·	1	1	·	·	·	·	·	·	5
소계	4	4	2	4	14	5	2	1	7	15	·	·	·	3	3	·	·	·	1	1	33	

손들로서, 족보에는 생몰연대를 비롯한 여산송씨의 상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출토복식을 신고한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참고하면 송효상은 禦侮將軍行忠武衛副直府君을 지냈으며, 생몰연대는 1430-1490년으로 추정된다. 묘주 간의 인적관계를 보면, 송효상의 아들은 龜夢이고, 구몽의 아들은 光祖, 繼祖이며, 계조의 아들은 喜崔, 喜遇, 희종이고, 희최의 배위는 충주박씨이고, 희종의 배위는 순흥안씨이다.

묘주의 인적관계로 볼 때, 송효상과 송희종의 생몰연대는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송효상의 생몰연대는 15세기 중·후반으로, 송희종의 생몰연대는 16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충주박씨는 송희종의 첫째 형인 宋喜崔의 부인이므로 생몰연대는 송희종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추정되고, 순흥안씨는 송희종의 부인이므로 생몰연대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출토된 포가 실제로 착용된 시기는 묘주의 추정 물 연대를 참고해 볼 때, 송효상의 포는 15세기 후반, 송희종의 포는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충주박씨와 순흥안씨 묘에서 수습된 남자 포는 우리나라 묘제의 특성상 여자의 묘에서 나온 남자의 옷은 남편의 옷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각 남편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충주박씨묘에서 나온 남자 포(직령, 철릭, 액주름)는 남편인 송희최의 것으로 16세기 후반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순흥안씨의 묘에서 나온 남자 포(옆자락 없는 직령) 역시 남편인 송희종의

것으로 16세기 후반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희최와 송희종의 포는 모두 16세기 후반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송희최가 송희종의 첫째 형이고, 수습된 포 중 송희최의 직령이 형태면에서 송희종의 직령과 크게 다르고 오히려 15세기 후반의 인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직령과 유사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송희최의 포는 송효상대와 송희종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남자 포의 실제 착용시기는 송효상의 포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송희최의 포(충주박씨묘), 송희종의 포 순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송효상 묘에서 출토된 포는 시기 추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옷길이양식, 깃양식, 설양식, 소매양식, 옆자락양식 등에서 16세기 전반에 착용되었던 다른 포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송효상 묘에서 출토된 포의 착용시기를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으로 넓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송효상의 생몰연대에 관한 문종의 기록과 의견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 추정은 추후 새로운 자료가 제시될 경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유형별 착용빈도

<표 1>에 의하면 남자의 포는 15세기 후반에는 직령, 옆자락 없는 직령, 답호, 도포형 직령, 철릭, 액주

름 등이 착용되었고, 16세기 후반에는 답호를 제외한 모든 포가 그대로 착용되었다. 즉 착용된 포는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기변화에 따른 유형별 착용빈도는 다소 변화되었다. 직령과 철릭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모두 착용되었고, 그 착용빈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옆자락 없는 직령과 도포형 직령은 15세기 후반보다 16세기 후반에 많이 착용되었고, 반면에 액주름은 15세기 후반에는 많이 착용되었으나 16세기 후반에는 그다지 많이 착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답호는 15세기 후반에는 착용되었으나 16세기 후반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남자의 포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 무렵까지 약 100여년 동안 직령과 철릭이 상대적으로 많이 착용되는 가운데, 옆자락 없는 직령과 액주름도 많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염습제도상의 용도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수습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 총

33점 중 송효상묘에서 14점, 송희종묘에서 15점, 충주박씨묘에서 3점, 순흥안씨묘에서 1점이 각각 수습되었다.

15세기 후반에 착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포는 총 14점 중 습의가 4점, 소령의가 4점, 대령의가 2점, 산의가 4점이고, 16세기 후반에 착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희종의 포는 총 15점 중 습의가 5점, 소령의가 2점, 대령의가 1점, 산의가 7점이다. 한편, 여자의 상례에 사용된 남자의 포는 주로 산의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송효상과 송희종의 묘에서 수습된 포의 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는 비록 염습의에 소요되는 포의 종류는 다소 변화되었을지라도 포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유형별 조형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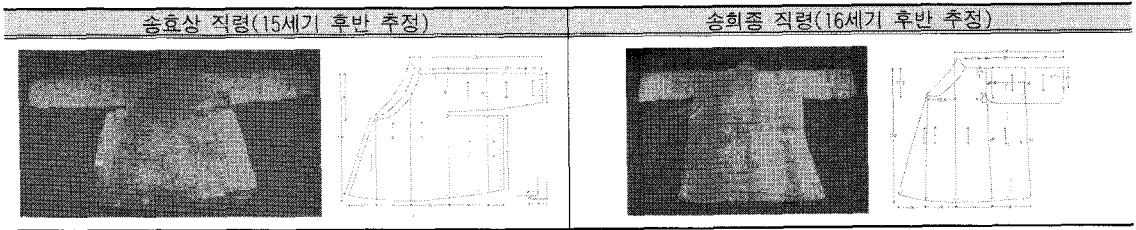
1. 직령

직령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총 9점이 수습되었다. 송효상묘에서 3점, 충주박씨묘에서 1점, 송희종묘에서 5점이 수습되었는데, 충주박씨묘의 직령은 남편

〈표 2〉 여산송씨 일가 묘 직령의 조형 특성

(단위: cm)

묘주 (추정 착용시기)	송효상 (15세기 후반)			충주박씨 (16세기 후반)	송희종 (16세기 후반)					
	1	2	3	4	5	6	7	8	9	
용도	소령의	산의	산의	산의	습의	소령의	소령의	산의	산의	
구성양식	홀	숨	겹	숨	홀	홀	겹	홀	홀	
옷길 이	양식	전단후장형	전단후장형	전단후장형	전단후장형	전단후장형	전단후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앞/뒤 (차이)	126/134(8)	124/131(7)	128/135(7)	113/120(7)	130/133(3)	130/133(3)	134/134(0)	130/130(0)	129/129(0)
깃	양식	반목판형	반목판형	반목판형	반목판형	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칼깃 (이중깃)	칼깃 (이중깃)	칼깃 (이중깃)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안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나비	14(7+7)	13(6.5+6.5)	13(7+6)	13	11	10	10	10	12.5
동정 나비	5			4.5	-	9.5	7.5			
	견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이중선	
소매	안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단선	
	양식	착수형	공각지형	공각지형	공각지형	공각지형	공각지형	공각지형	공각지형	
여밈양식	전동술과 차이	9	6	3	2.5	7	7	10.5	5.5	6
	삼각무	無	1.5×1.5	1×1	2×2	無	無	無	無	無
여밈양식	간접부착형 끈고름 1쌍	-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그림 1〉 직령의 사진 및 도식화(No. 1, No. 8)

인 송희최의 것으로 추정된다. 〈표 2〉는 직령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1〉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의 직령을 나타낸 것이다.

1) 옷길이양식

직령은 총 9점 중 6점은 전단후장형이고(No. 1, 2, 3, 4, 5, 6), 3점은 전후동장형이다(No. 7, 8, 9).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직령은 모두 전단후장형이고,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최와 송희종의 직령은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장형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옷길이양식이 16세기 후반 무렵에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단후장형의 경우 앞길기와 뒷길기의 차이는 No. 1·2·3·4의 직령은 7-8cm로서 크고, No. 5·6의 직령은 3cm로서 작은 것으로 보아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차이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깃양식

송효상과 송희최의 직령은 이중깃⁴⁾에 반목판형칼깃이고, 깃나비는 13-14cm 정도이다(No. 1, 2, 3, 4). 송희종의 직령은 모두 일반깃에 칼깃이고, 깃나비는 10-11cm 정도이다(No. 5, 6, 7, 8, 9). 안깃은 모두 목판깃이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직령에는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 나타나고,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최와 송희종의 직령에는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과 일반깃의 칼깃이 함께 나타나며, 깃나비가 13-14cm 정도에서 10-11cm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깃양식이 16세기 후반 무렵에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정나비는 이중깃의 경우 4.5-5cm 정도이고, 일반

깃의 경우 7.5-9.5cm 정도로서, 깃나비가 점점 좁아지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3) 셔양식

겉셔는 모두 이중셔이고, 안셔는 모두 단셔이다.

4) 소매양식

소매는 착수형과 콩각지형⁵⁾이 함께 나타난다. 송효상의 직령 1점이 착수형인 것을 제외하고(No. 1), 나머지 8점은 모두 콩각지형이다. 콩각지형 소매의 경우 진동술과 최대소매통⁶⁾의 치수 차이는 3-7cm 정도인 것도 있고, 10.5cm 정도로 큰 것도 있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직령에서는 착수형과 콩각지형 소매가 함께 나타나지만,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최와 송희종의 직령에서는 모두 콩각지형 소매가 나타나고, 특히 콩각지형 소매의 소매통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삼각무⁷⁾는 송효상의 직령 2점(No. 2, 3)과 송희최의 직령(No. 4)에만 달려 있다. 즉 삼각무는 진동술과 최대소매통의 치수 차이가 2.5·3·6cm 등으로 비교적 작은 콩각지형 소매에만 달려 있고, 치수 차이가 5.5·6·7·10.5cm 등으로 큰 콩각지형 소매에는 달려있지 않다. 삼각무의 크기는 1×1cm, 1.5×1.5cm, 2×2cm 로서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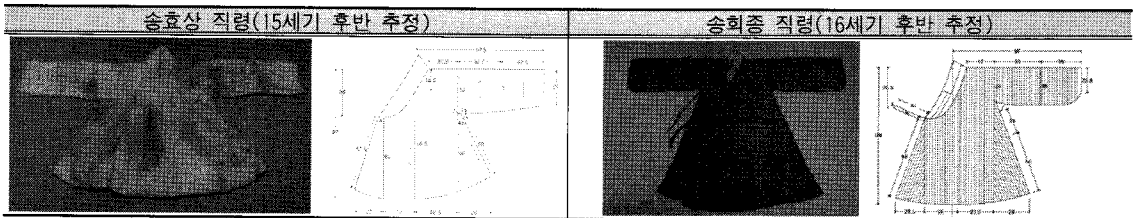
5) 여밈양식

여밈은 간접부착형도 있지만 주로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사용되었다. 고찰가능한 유물을 통해 볼 때, 겹이나 숨 직령의 경우 끈고름 나비가 2-2.5cm 정도이고, 옷에 달 때 그냥 편 상태로 달았다(No. 4,

〈표 3〉 여산송씨 일가 묘 옆자락 없는 직령의 조형 특성

(단위: cm)

묘주 (추정 착용시기)		송효상 (15세기 후반)	송희종 (16세기 후반)				순흥안씨 (16세기후반- 17세기전반)
No		1	2	3	4	5	6
용도		소렴의	습의	습의	산의	산의	산의
구성양식		숨	숨누비	겹	숨누비	숨누비	겹
옷 길이	양식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단후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앞/뒤(차이)	97/97(0)	130/130(0)	125/128(3)	128/128(0)	120/120(0)	132/132(0)
깃	양식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안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나비	11	10	11	10	12	9.5
섶	동정 나비	無	8	7.5	7	7.5	無
	겉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안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소매	양식	착수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착수형	콩각지형
	진동솔과 차이	6	5	4.5	4	8.5	13
	삼각무	4.5×4.5	4×4	4×4	4.5×4.5	5×5	2.5×2.5
여빔양식		-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그림 2〉 옆자락 없는 직령의 사진 및 도식화(No. 1, No. 4)

5, 7). 그런데 홑직령의 경우 겹고름 나비가 3-3.5cm 정도이고, 옷에 달 때 반으로 접어 달았다(No. 6, 8, 9). 즉 고름나비가 3cm인 것은 1.5cm로, 3.5cm인 것은 1.8cm로 접어 고름을 두 겹인 상태로 옷에 달았는데, 이는 일종의 고름바대와 같은 것으로 옷도 고름도 모두 홑이므로 고름을 튼튼하게 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옆자락 없는 직령

옆자락 없는 직령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총 6점이 수습되었다. 송효상묘에서 1점, 송희종묘에서 4점,

순흥안씨묘에서 1점이 수습되었는데, 순흥안씨의 묘의 직령은 남편인 송희종의 것으로 추정된다. 옆자락 없는 직령은 겹, 숨, 숨누비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주로 방한용 포로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3〉은 옆자락 없는 직령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2〉는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의 옆자락 없는 직령을 나타낸 것이다.

1) 옷길이양식

송희종의 것 1점(No. 3)이 전단후장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전후동장형이다. 전단후장형의 경우 길이 차이가 3cm 정도로 작은 편이다.

2) 깃양식

깃은 모두 일반깃의 깔깃이고, 깃나비는 10-11cm 정도이다. 안깃은 순흥안씨묘의 직령(No. 6)이 깔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목판깃이다. 동정나비는 7-8cm 정도로서 넓은 편이다.

3) 섶양식

겉섶은 모두 이중섶이고, 안섶은 모두 단섶이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순흥안씨묘의 직령은 겉섶이 이중섶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이중섶이 아니고, 겉섶 2개를 이은 솔기선이 상부에는 없고 하부에만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즉 겉섶의 상부는 단섶이고, 하부는 이중섶인 것으로 보아 겉섶이 이중섶에서 단섶으로 변화되는 과도기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4) 소매양식

소매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함께 나타난다. 송효상의 직령은 착수형이고, 송희종의 직령은 총 4점 중 1점은 착수형이고 3점은 진동술과 최대소매통의 치수 차이가 4-5cm인 콩각지형이며, 순흥안씨묘의 직령은 진동술과 최대소매통의 치수 차이가 13cm인 콩각지형이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직령은 착수형 소매이고,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

희종의 직령은 모두 콩각지형 소매인 것으로 보아 시기변화에 따라 소매양식이 착수형에서 콩각지형으로 변화되었고, 콩각지형 소매의 소매통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각무는 옆자락 없는 직령에 모두 달려 있다. 삼각무의 크기는 송효상과 송희종의 직령에는 4-5×4-5cm 정도인데, 순흥안씨묘의 직령에는 2.5×2.5cm이다.

5) 여밈양식

여밈은 주로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다. 고찰가 능한 유물을 통해 볼 때 끈고름 나비는 2-3cm 정도이고, 길이는 착수형 소매의 경우 34.5cm이고 콩각지형 소매의 경우 50-60cm 정도이다. 소매가 넓어지면 고름 길이도 어느 정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끈고름은 길이 짙은 색이면 연한 색이(No. 4, 6), 길이 연한 색이면 짙은 색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No. 2, 5).

3. 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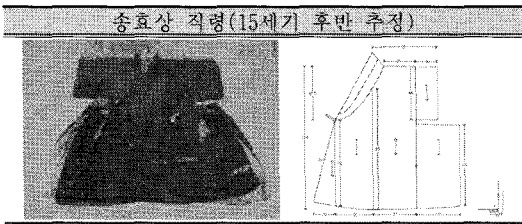
답호는 여산송씨 일가 묘 중 송효상의 묘에서만 2점이 수습되었다. 일반적으로 답호는 임란 이전에는 곧은 것에 교임형이고 반소매이며, 좌우의 옆에 넓은 사각형의 옆자락이 달려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⁸⁾ 그런데 임란 이후에는 깃은 여전히 곧은 것에 교임형

<표 4> 여산송씨 일가 묘 답호의 조형 특성

(단위: cm)

묘주(추정 착용시기)		송효상(15세기 후반)	
No		1	2
용도		습의	대령의
구성양식		숨	홀
옷길이	양식	전단후장형	전단후장형
	앞/뒤(차이)	117/127(10)	126/134(8)
깃	양식	반목판형깔깃(이중깃)	반목판형깔깃(이중깃)
		목판깃	목판깃
	나비	7+7(14)	7+7(14)
섶	동정나비	5	9
	겉섶	이중섶	이중섶
	안섶	단섶	단섶
소매	양식	반수 착수형	반수 착수형
	삼각무	無	無
여밈양식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간접부착형, 끈고름 1쌍

이지만, 반소매가 민소매로 변하고 사각형의 넓은 옆자락이 삼각형의 무로 변하게 되었고,⁹⁾ 조선후기에는 여밌마저 교임형에서 대금형으로 변하게 되었다.¹⁰⁾ 여산송씨 일가 묘 송효상의 답호 2점은 임란 이전의 유물이므로 전형적인 임란 이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4>는 답호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3>은 15세기 후반의 답호인데, 소매를 제외한 조형 특성이 직령과 거의 동일하다.



<그림 3> 답호의 사진 및 도식화(No. 1)

1) 옷길이상식

답호는 2점 모두 전단후장형이고, 앞길이와 뒷길이의 차이는 8-10cm로서 큰 편이다.

2) 깃양식

깃은 2점 모두 이중깃의 반목관형깃이고, 안깃은 목관깃이다. 깃나비는 2점 모두 14cm로서 큰 편이다.

동정은 답호 2점에 모두 달려 있으나, 그 구성법이 크게 다르다. No. 1의 답호에는 동정을 겹에서는 5cm, 안에서는 2.5cm가 보이도록 홀으로 하여 달았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다른 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No. 2의 답호에는 동정을 겹에서도 9cm, 안에서도 9cm가 보이도록 겹으로 하여 달았다(그림 4). 즉 포폭이 36cm인 천을 반으로 접어 18cm

로 만든 다음, 이것을 다시 반으로 접어 동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겹으로 된 동정이 겹쪽에서도 9cm가 보이고, 안쪽에서도 9cm가 보이게 되는데, 이는 흔히 볼 수 없는 방법이다.

3) 섶양식

겉섶은 모두 이중섶이고, 안섶은 모두 단섶이다.

4) 소매양식

소매는 모두 반소매이다. 화장은 진동선에서 18cm, 23cm 정도의 옷감을 이어 붙여 각각 55cm, 59cm이다. 삼각무는 모두 달리지 않았다.

5) 여밌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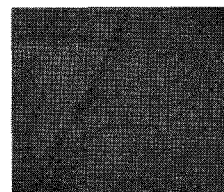
답호의 여밌양식은 직접부착형과 간접부착형이 함께 사용되었다. 송답호는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사용되었고, 길고름의 나비는 2cm, 길이는 27cm이다(No. 1). 홀답호는 간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사용되었는데(No. 2), 겉섶쪽의 고름길이가 겉섶의 선단에 달리지 않고 겉깃의 끝에서 깃쪽으로 1cm 올라간 곳에 달려 있다(그림 5). 고름길이의 나비는 0.4cm, 길이는 3cm 정도이다. 안섶쪽의 고름길이는 떨어지고 없다.

4. 도포형 직령

도포형 직령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총 3점이 수습되었다. 송효상의 묘에서 1점, 송희종의 묘에서 2점이 수습되었다. 도포형 직령은 형태면에서 옆자락에 주름이 있다는 점에서 직령과 비슷하고, 옆자락이 뒷길 안쪽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포와도 비슷하



<그림 4> 동정의 겉과 안(N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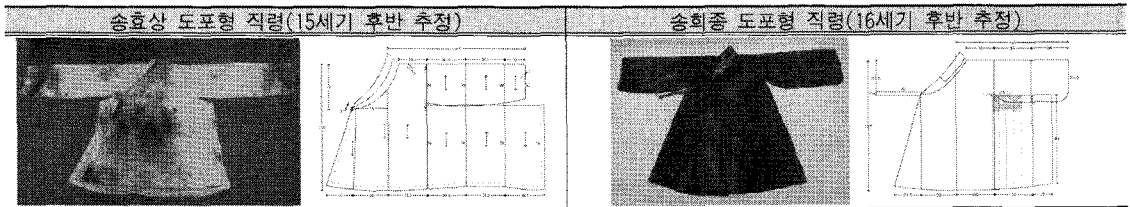


<그림 5> 간접부착형 고름길이(No. 2)

〈표 5〉 여산송씨 일가 묘 도포형 직령의 조형 특성

(단위: cm)

묘주(추정 착용시기)		송효상(15세기 후반)	송희종(16세기 후반)	
No		1	2	3
용도		산의	대림의	산의
구성양식		홀	겹	홀
옷길이	양식	전단후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앞/뒤(차이)	118/126(8)	129/129(0)	127/127(0)
깃	양식	곁깃	반목판형 칼깃(이중깃)	칼깃(일반깃)
		안깃	목판깃	목판깃
	나비	14(7+7)	10.5	10.5
섶	동정나비	無	7.5	無
	곁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안섶	단섶	단섶	단섶
소매	양식	콩각지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진동솔과 차이	3	8	5.5
	삼각부	無	無	無
여밈양식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1쌍



〈그림 6〉 도포형 직령의 사진 및 도식화(No. 1, No. 2)

므로 편이상 명명한 의복명이다. 물론 도포형 직령이 형태면에서 도포와 직령과 많이 닮아 있지만 도포형 직령과 같은 형태의 포가 일찍이 고려시대의 유물에서도 확인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도포형 직령을 도포, 직령과 관련이 있는 하나의 독립된 포로 보고자 한다. 도포형 직령의 명칭 문제는 추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는 도포형 직령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6〉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의 도포형 직령을 나타낸 것인데, 옆자락을 제외한 조형 특성이 직령과 거의 동일하다.

1) 옷길이양식

송효상의 도포형 직령은 전단후장형이고(No. 1), 송희종의 도포형 직령 2점은 모두 전후동장형이다(No. 2, 3). 전단후장형의 경우 앞길리와 뒷길리의 차이는 8cm로서 큰 편이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

되는 송효상의 깃은 전단후장형이고,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종의 깃은 모두 전후동장형인 것으로 보아 옷길이양식이 16세기 후반 무렵에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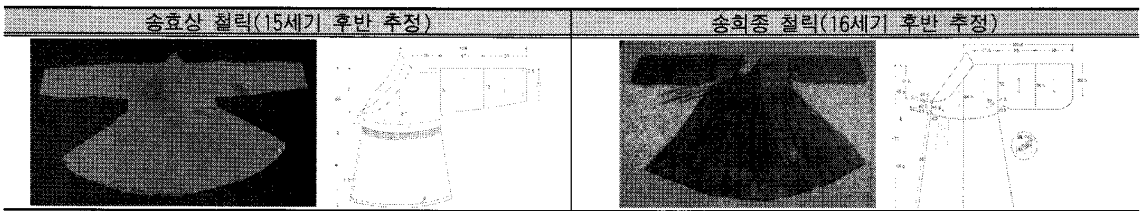
2) 깃양식

깃은 송효상의 경우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고, 깃나비가 14cm이며(No. 1), 송희종의 경우 모두 일반깃의 칼깃이고, 깃나비가 10.5cm이다(No. 2, 3). 안깃은 모두 목판깃이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경우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고, 16세기 후반으로 송희종의 경우 일반깃의 칼깃이며, 깃나비가 14cm 정도에서 10cm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깃양식이 16세기 후반 무렵에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정은 겹 도포형 직령에만 달려 있고, 나비가 7.5cm이다.

<표 6> 여산송씨 일가 모 철릭의 조형 특성

(단위: cm)

묘주 (추정 착용시기)		송효상 (15세기 후반)				충주박씨 (16세기 후반)	송희중 (16세기 후반)		
No		1	2	3	4	5	6	7	8
용도		습의	습의	소렴의	소렴의	산의	습의	습의	산의
구성양식		숨누비	숨누비	홀	홀	숨누비	겹	겹	홀
옷 길 이	양식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전후동장형
	의길이/ 상길이 (의상비)	53 / 58 (1 : 1.09)	53 / 60 (1 : 1.13)	53 / 61 (1 : 1.15)	50 / 63 (1 : 1.26)	46 / 63 (1 : 1.37)	47 / 85 (1 : 1.81)	47 / 85 (1 : 1.81)	53 / 74 (1 : 1.40)
	상의 폭수	30×14폭	38×13폭	37×14폭	35×14폭	-	40×12폭	35×12폭	40×10폭
깃	양식	겉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반목판형 칼깃 (이중깃)	반목판형 칼깃 (이중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칼깃 (일반깃)
		안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목판깃	칼깃	목판깃	목판깃
	나비	12	14	14	13	13	11.5	10.5	13
섶	동정나비	4.5	4.5	無	無	4	8	8	無
	겉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소매	안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無	단섶	無
	양식	착수형	착수형	착수형	반수착수형	연결착수형	콩각지형	콩각지형	착수형
	진동솔과 차이	8	9	10	0	1	6	7	10
여밌양식	삼각무	3×3	2.5×2.5	無	無	2.5×2.5	2.5×2.5	無	無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간접부착형 끈고름 2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그림 7> 철릭의 사진 및 도식화(No. 3, No. 7)

3) 섶양식

겉섶은 모두 이중섶이고, 안섶은 모두 단섶이다.

4) 소매양식

소매는 3점 모두 콩각지형 소매이다. 콩각지형 소매의 경우 진동솔과 최대소매통의 치수 차이가 송효상의 것은 3cm이고, 송희중의 것은 각각 5.5cm, 8cm인 것으로 보아 시기변화에 따라 소매통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각무는 모두 달리지 않았다.

5) 여밌양식

여밌는 3점 모두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사용되었다. No. 2의 도포형 직령의 겹고름을 보면, 겹섶쪽은 나비가 3cm이고, 길이가 40cm이다. 안섶쪽은 전체 고름나비 3.3cm를 1.5cm가 되도록 접어서 두 겹인 상태로 옷에 달았고, 길이는 역시 40cm이다. No. 1의 도포형 직령은 겹고름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나비는 겹섶쪽은 3cm이고, 안섶쪽은 1.2cm이다. 안섶쪽의 고름나비가 겹섶쪽의 반 정도인 것으로 보아 반으로

접어서 단 것으로 추정되며, 고름이 옆선이 아니라 배래선 상에 달려 있다.

5. 철릭

철릭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총 8점이 수습되었다. 송효상의 묘에서 4점, 송희종의 묘에서 4점이 수습되었다. <표 6>은 철릭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7>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의 철릭을 나타낸 것이다.

1) 옷길이양식

철릭은 모두 앞길기와 뒷길기가 같은 전후동장형이다. 철릭의 衣와 囊의 비율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상의 비율이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¹¹⁾ 여산송씨 일가 묘의 철릭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철릭의 평균 의상比를 보면 송효상의 철릭(No. 1, 2, 3, 4)은 1 : 1.16이고, 송희종의 철릭(No. 5, 6, 7, 8)은 1 : 1.60으로서 송희종대로 갈수록 상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2) 깃양식

송효상의 철릭은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과 일반깃의 칼깃이 함께 나타나고, 깃나비는 12-14cm 정도이다(No. 1, 2, 3, 4). 송희최와 송희종의 철릭은 모두 일반깃의 칼깃이고, 깃나비는 10.5-13cm 정도이다(No. 5, 6, 7, 8). 안깃은 송희종의 철릭 1점(No. 8)이 칼깃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목판깃이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철릭에서는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과 일반깃의 칼깃이 함께 나타나고,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최와 송희종의 직령에서는 일반깃의 칼깃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철릭의 깃양식은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과 일반깃의 칼깃이 공존하다가 16세기 후반 무렵에는 일반깃의 칼깃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정나비는 이중깃의 경우 4.5cm 정도이고, 일반깃의 경우 8cm 정도인 것으로 보아 깃나비가 점점 좁아지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3) 섹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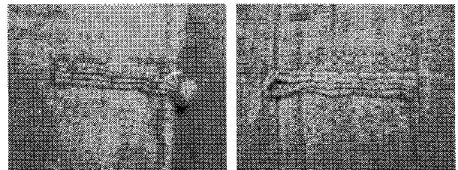
길섹과 안섹이 모두 단섹이다. 안섹은 형식적으로 작게 달려 있는데, 송희종의 철릭 2점(No. 6, 8)에는 안섹이 아예 없다.

4) 소매양식

철릭 유물 총 8점 중 긴소매 철릭이 6점이고(No. 1, 2, 3, 6, 7, 8), 소매를 탈부착할 수 있는 철릭이 1점이며(No. 5), 반소매 철릭이 1점이다(No. 4). 긴소매로 된 철릭 중 송효상의 철릭 3점은 착수형이고(No. 1, 2, 3), 송희종의 철릭은 3점 중 1점은 착수형이고(No. 8), 2점은 롱각지형이다(No. 6, 7).

No. 5의 철릭은 매듭단추와 매듭고리를 사용하여 소매를 꿰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듭단추는 소매쪽에, 매듭고리는 길쪽에 붙어 있다(그림 8). 천을 가늘게 말아 매듭단추와 매듭고리를 만든 다음 정해진 위치에 매듭단추와 매듭고리를 놓고 겹에서 온당침으로 고정하였다. 매듭단추와 매듭고리는 길이가 5cm 정도이고, 총 7쌍을 달았는데, 어깨선상에는 2쌍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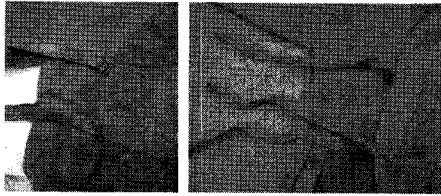
삼각무는 철릭 유물 총 8점 중 4점에는 있고, 4점에는 없다. 즉 삼각무는 송효상과 송희최의 착수형 소매 철릭 3점(No. 1, 2, 5)과 송희종의 롱각지형 소매 철릭 1점(No. 6)에 달려 있는데, 크기는 2.5×2.5cm·3×3cm 등으로 작은 편이다.



<그림 8> 소매의 매듭단추와 매듭고리(No. 5)

5) 여밈양식

여밈은 고찰가능한 유물 7점 중 간접부착형 끈고름 2쌍이 1점이고(No. 3),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 1점이며(No. 1), 나머지 5점은 모두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이다(No. 2, 4, 6, 7, 8). 철릭에는 다른 포와 달리 주로 끈고름 2쌍이 사용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



<그림 9> 직접부착형 끈고름(No.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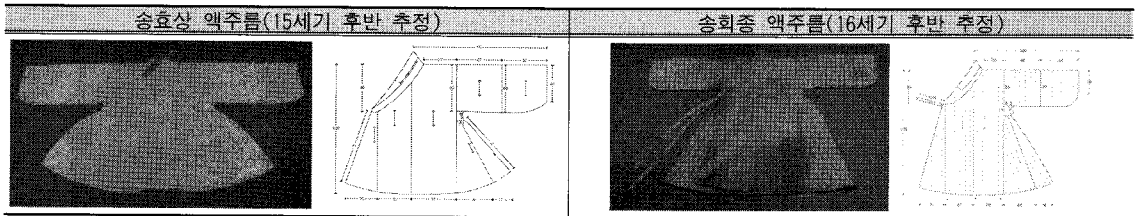
<그림 10> 간접부착형 끈고름걸이(No. 3)

<그림 7> 철릭의 사진 및 도식화(No. 3, No. 7)

<표 7> 송효상 일가 모 액주름의 조형 특성

(단위: cm)

묘주 (추정 착용시기)	송효상 (15세기 후반)			송희종 (16세기 후반)	송희종 (16세기 후반)
No	1	2	3	4	5
용도	습의	대림의	산의	산의	산의
구성양식	겹	숨	숨	숨누비	숨누비
옷길이(양식)	108(전후동장형)	104(전후동장형)	87(전후동장형)	106(전후동장형)	126(전후동장형)
깃	양식	반목관형칼깃(이중깃)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칼깃(일반깃)
	안깃	목관형칼깃	목관깃	목관깃	목관형칼깃
	나비	12.5(6+6.5)	11.5	12	12.5
동정 나비	5.5	5	5	4.5(흔적)	6
섶	겉섶	이중섶	이중섶	단섶	이중섶
	안섶	단섶	단섶	단섶	단섶
소매	양식	착수형	착수형	착수형	콩가지형
	진동솔과 차이	8	6.5	6	5.5
	삼각무	3×3	2.5×2.5	2×2	2.5×2.5
여밈양식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2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그림 11> 액주름의 사진 및 도식화(No. 1, No. 5)

는 겉섶선단의 상하 2곳에 끈고름을 달아 여밈효과는 물론이고 위로는 깃을, 아래로는 치마의 주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줌으로써 균형잡힌 조형미를 연출하고 있다.

겹이나 숨누비철릭의 경우 겉고름 나비가 2cm 정

도 되게 하여 그냥 달았고(No. 2, 6, 7), 홑철릭의 경우 나비가 3.5cm 정도인 고름을 옷에 달 때 반으로 접어서 달았는데(No. 8), 역시 고름을 튼튼하게 달기 위한 것이다(그림 9). 한편, 간접부착형의 경우 나비가 0.5cm이고 길이가 11cm인 끈고름걸이 2개를 만들

어 각각 걸쇠선단쪽과 옆선(앞길쪽)에 올려놓고 은 당침으로 고정하였다(그림 10).

6. 액주름

액주름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총 5점이 수습되었다. 송효상의 묘에서 3점, 송희종의 묘에서 1점, 충주박씨의 묘에서 1점이 수습되었는데, 충주박씨묘의 액주름은 남편인 송희최의 것으로 추정된다. 액주름은 겹, 솜, 솜누비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주로 방한용으로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7>은 액주름의 조형 특성을 정리한 것이고, <그림 11>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의 액주름을 나타낸 것이다.

1) 옷길이양식

액주름은 모두 앞길리와 뒷길리가 같은 전후동장형이다.

2) 깃양식

깃은 송효상의 액주름 1점은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고(No. 1), 깃나비는 12.5cm이고, 나머지 액주름은 모두 일반깃의 칼깃이다(No. 2, 3, 4, 5). 깃나비는 송효상과 송희최의 경우 11.5-12.5cm 정도이고(No. 2, 3, 4), 송희종의 경우 10cm 정도이다(No. 5). 안깃은 목판깃도 있고, 깃머리부분이 곡진 목판형 칼깃도 있다. 동정나비는 4.5-6cm 범위이다.

3) 쇄양식

어린 소년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No. 3의 액주름의 걸쇠이 단쇠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쇠이다. 안쇠는 모두 단쇠이다.

한편, No. 3의 액주름은 다른 액주름에 비해 옷길이, 화장, 진동술, 무, 끈고름 등 모든 부위의 치수가 작은 것으로 보아 송효상이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 소년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액주름은 걸쇠이 이중쇠에서 단쇠로 변화된 유물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걸쇠를 단쇠로 만든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4) 소매양식

소매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함께 나타난다. 송효상과 송희최의 액주름은 착수형이고(No. 1, 2, 3, 4), 송희종의 액주름은 진동술과 최대소매통의 치수 차이가 2cm 정도로 작은 콩각지형이다(No. 5). 즉 송효상과 송희최의 액주름은 착수형 소매이고, 송희종의 액주름은 콩각지형 소매인 것으로 보아 소매모양이 착수형에서 콩각지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각무는 모두 달려 있다. 삼각무의 크기는 송효상과 송희최의 경우 2.5×2.5cm, 3×3cm이고, 송희종의 경우 4.5×4.5cm이다.

5) 여밈양식

여밈은 모두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이다. 고찰가 능한 유물을 통해 볼 때 겹고름 나비는 3-4.5cm 범위이다(No. 1, 2, 4, 5). 길이는 No. 5의 액주름에서만 확인되는데, 겹고름의 길이가 각각 126cm, 92cm로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끈고름의 재질과 색상은 모두 길과 동일하다. 그런데 No. 3의 액주름은 겹고름의 나비가 1.5cm이고, 길이가 25cm로서 다른 액주름 유물들에 비해 치수가 작은 편이고, 색상 또한 쪽색으로 길과 다르다.

IV.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시기별 조형 특성과 변화 양상

<표 8>은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시기별 조형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시기별 조형 특성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 중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모두 출토된 사례가 있는 포를 고찰대상으로 선별하였다.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옷길이양식

직령교임식 포의 시기별 옷길이양식의 변화는 직령, 옆자락 없는 직령, 도포형 직령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답호는 15세기 후반에만 나타나고, 철릭과

〈표 8〉 직령교임식 남자 포의 시기별 조형 특성과 변화 양상

고찰 항목	시기	양식 분류	직령 (9점)	옆자락 없는 직령 (6점)	담호 (2점)	도포형 직령 (3점)	철릭 (8점)	액주름 (5점)	고찰가능 유물수 (출현율:%)	변화 양상
옷길이상식	15C 후반	전단후장형	3	·	(2)	1	·	·	4 (80)	18 전단후장형 ↓ 전후동장형
	16C 후반	전후동장형	·	1	·	·	(4)	(3)	1 (20)	
	15C 후반	전단후장형	3	1	·	·	·	·	4 (30.8)	
	16C 후반	전후동장형	3	4	·	2	(4)	(2)	9 (69.2)	
깃양식	15C 후반	이중깃 반목판형칼깃	3	·	(2)	1	2	1	7 (58.3)	31 이중깃 반목판형칼깃 ↓ 일반깃 칼깃
	16C 후반	일반깃 칼깃	·	1	·	·	2	2	5 (41.7)	
	15C 후반	이중깃 반목판형칼깃	1	·	·	·	·	·	1 (5.3)	
	16C 후반	일반깃 칼깃	5	5	·	2	4	2	18 (94.7)	
섶양식	15C 후반	이중섶	3	1	(2)	1	·	2	7 (100)	23 이중섶 유지
	16C 후반	단섶	·	·	·	·	(4)	(1) ¹²⁾	0 (0)	
	15C 후반	이중섶	6	5	·	2	·	2	15 (100)	
	16C 후반	단섶	·	·	·	·	(4)	·	0 (0)	
소매양식	15C 후반	착수형	1	1	(2)	·	4	3	9 (75)	31 착수형 ↓ 콩각지형
	16C 후반	콩각지형	2	·	·	1	·	·	3 (25)	
	15C 후반	착수형	·	1	·	·	2	1	4 (21.1)	
	16C 후반	콩각지형	6	4	·	2	2	1	15 (78.9)	
여밌양식	15C 후반	직접부착형 끈고름	1	·	1	1	3	3	9 (75)	30 끈고름 유지
	16C 후반	간접부착형 끈고름	1	·	1	·	1	·	3 (25)	
	15C 후반	직접부착형 끈고름	6	5	·	2	3	2	18 (100)	
	16C 후반	간접부착형 끈고름	·	·	·	·	·	·	0 (0)	

- () : 고찰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의 수

액주름은 두 시기 모두 전후동장형만 나타나므로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직령교임식 포의 옷길이상식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장형이 공존하는 가운데 15세기 후반에는 전단후장형의 비중이 80%, 16세기 후반에는 전후동장형의 비중이 69.2%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직령교임식 포의 옷길이상식은 15세기 후반에는 전단후장형이, 16세기 후반에는 전단후장형이 점점 사라지면서 전후동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령교임식 포의 옷길이상식은 16세기 후반에 전단후장형에서 전후동장형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옷길이상식의 변화는 대표적인 직령교임식 포인 직령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³⁾. 즉 직령의 경우에도 15세기 후반에는 전

단후장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16세기 후반에는 전단후장형이 점점 사라지면서 전후동장형이 주로 사용되다가 마침내 전후동장형이 직령의 옷길이상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2. 깃양식

직령교임식 포의 시기별 깃양식의 변화는 담호를 제외한 5점의 직령교임식 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직령교임식 포의 깃양식은 15세기 후반에는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 58.3%, 일반깃의 칼깃이 41.7%인데, 16세기 후반에는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 5.3%, 일반깃의 칼깃이 94.7%로서 일반깃의 칼깃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즉 직령교임식 포의 깃양식은 15세기 후반에는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과 일반깃의 칼깃이 공존하였으나, 16세기 후

반에는 이중깃의 반목관형칼깃은 점점 사라지고 일반깃의 칼깃이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직령교임식 포의 깃양식은 16세기 후반에 이중깃의 반목관형칼깃에서 일반깃의 칼깃으로 변화되면서 다소 간소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깃양식의 변화는 대표적인 직령교임식 포인 직령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¹⁴⁾.

한편, 직령교임식 포제들 간의 깃양식의 변화 시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15세기 후반에 일반깃의 출현 여부를 조사하면, 직령, 답호, 도포형 직령의 경우 15세기 후반에 일반깃의 칼깃이 나타나지 않으나, 옆자락 없는 직령, 철릭, 액주름의 경우 15세기 후반에 이미 일반깃의 칼깃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깃양식의 변화는 직령교임식 포 중 직령, 답호, 도포형 직령과 같이 겨드랑이 아래의 옆선에 옆자락 있는 크고 관활한 형태의 포보다 옆자락 없는 직령, 철릭, 액주름과 같이 옆자락 없는 작고 밀착되는 형태의 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깃양식의 간소화는 전체 외관이 작은 형태의 포에서 먼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겹섄양식

직령교임식 포의 시기별 겹섄양식의 변화는 답호와 철릭을 제외한 4점의 직령교임식 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답호는 15세기 후반의 유물만 있고, 철릭은 두 시기 모두 단섄만 나타나므로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직령교임식 포의 겹섄양식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모두 이중섄이다. 즉 16세기 후반까지도 겹섄양식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겹섄양식의 시기별 변화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보면, 직령의 경우 17세기까지 주로 이중섄이고, 임란이후인 17세기 전반에 단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두 양식이 공존하다가 17세기 후반에 이중섄에서 단섄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⁵⁾. 여산송씨 일가 묘의 직령교임식 포가 모두 이중섄인 것은 이들 포가 모두 16세기 후반까지의 유물이므로 시기적으로 아직 이중섄에서 단섄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으로 이해된다.

4. 소매양식

직령교임식 포의 시기별 소매양식의 변화는 답호를 제외한 5점의 직령교임식 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직령교임식 포의 소매양식은 15세기 후반에는 착수형이 75%, 콩각지형이 25%인데, 16세기 후반에는 착수형이 21.1%, 콩각지형이 78.9%로서 콩각지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즉 직령교임식 포의 소매양식은 15세기 후반에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공존하였으나 16세기 후반에는 착수형은 점점 사라지고 콩각지형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령교임식 포의 소매양식은 16세기 후반에 착수형에서 콩각지형으로 변화되면서 다소 거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매양식의 변화는 대표적인 직령교임식 포인 직령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¹⁶⁾.

일반적으로 삼각무는 소매모양이 착수형과 콩각지형에서 광수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¹⁷⁾ 여산송씨 일가 묘의 직령교임식 포는 모두 소매양식이 착수형과 콩각지형이므로 삼각무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매통이 넓어지면서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령교임식 포제들 간의 소매양식의 변화 시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15세기 후반에 콩각지형 소매의 출현여부를 조사하면, 직령, 도포형 직령의 경우 15세기 후반에 이미 콩각지형 소매가 나타나고 있으나, 옆자락 없는 직령, 철릭, 액주름의 경우 15세기 후반에 콩각지형 소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매양식의 변화는 직령교임식 포 중 옆자락 없는 직령, 철릭, 액주름과 같이 옆자락 없는 작고 밀착되는 형태의 포보다 직령, 도포형 직령과 같이 겨드랑이 아래의 옆선에 옆자락 있는 크고 관활한 형태의 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소매양식의 거대화는 전체 외관이 큰 형태의 포에서 먼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후대로 갈수록 소매양식이 거대화되는 것은 전술한 깃양식이 간소화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

이다. 소매와 깃이 서로 반비례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복식미와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직령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령은 후대로 갈수록 깃과 옆자락을 포함한 체간부는 밀착되고 간소화되는 반면, 소매부분은 풍성하고 거대해지면서 간소한 차림새와 풍성한 차림새가 공존하는, 이른바 강약의 조화에 의한 복식미를 연출하였다¹⁸⁾. 여산송씨 일가 묘의 직령교임식 포 역시 깃양식은 간소화되는 반면 소매양식은 거대화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복식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5. 여밈양식

〈표 8〉에 의하면 직령교임식 포의 여밈양식은 15세기 후반과 16세기 후반에 모두 끈고름인데, 15세기 후반에는 직접부착형끈고름이 75%, 간접부착형끈고름이 25%이고, 16세기 후반에는 직접부착형끈고름이 100%이다. 즉 직령교임식 포의 여밈양식은 간접부착형끈고름도 사용되었으나, 두 시기 모두 직접부착형끈고름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령의 경우 17세기 이후 겹섶이 단섶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밈양식 또한 끈고름에서 고름으로 변화되었다¹⁹⁾. 여산송씨 일가 묘의 직령교임식 포가 모두 끈고름인 것은 이들 포가 모두 16세기 후반까지의 유물이므로 시기적으로 아직 겹섶과 여밈양식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출토된 직령교임식 남자 포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직령교임식 포는 조형 특성에 있어서 시기별 차이를 보이는데,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대의 유물과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종대의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령교임식 포는 유형면에서 시기별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즉 15세기 후반에 착용된 직령, 옆자락 없는 직령, 단령, 답호, 도포형 직령, 철릭, 액

주름 등은 답호를 제외하고 16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착용되었다. 그런데 시기별 착용빈도면에서 직령과 철릭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 일정하게 많이 착용되었으나, 옆자락 없는 직령과 도포형 직령은 15세기 후반보다 16세기 후반에 많이 착용되었고, 액주름은 15세기 후반에는 많이 착용되었으나 16세기 후반에는 그다지 많이 착용되지 않았으며, 답호는 15세기 후반에만 착용예가 보이는 등 차이를 보였다.

2. 직령교임식 포의 조형 특성 중 옷길이양식, 깃양식, 소매양식은 시기별 차이를 보였다. 즉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효상대에는 전단후장형의 옷길이, 이중깃의 반목관형깃, 착수형의 소매가 주로 나타나고,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송희종대에는 전후동장형의 옷길이, 일반깃의 깃, 롱각지형의 소매가 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직령교임식 포의 조형 특성 중 겹섶양식, 여밈양식은 시기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겹섶양식은 두 시기에 모두 이중섶이고, 여밈양식 또한 두 시기 모두 끈고름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개 17세기 전반 무렵에 포의 겹섶양식이 이중섶에서 단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여밈양식 또한 끈고름에서 고름으로 변화되는데,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 수습된 포는 대부분 16세기 후반까지의 유물이므로 시기적으로 겹섶과 여밈양식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4. 삼각무는 옆자락 없는 직령, 액주름과 같이 아래자락이 두루막힌 포에는 모두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외의 직령교임식 포에는 겹, 솜, 솜누비로 된 포에는 사용되었으나, 홀로 된 포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크기는 작게는 1×1cm에서 크게는 5×5cm의 범위인데, 직령과 철릭에는 작은 삼각무가, 옆자락 없는 직령과 액주름에는 큰 삼각무가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5. 직령교임식 포에는 끈고름 1쌍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철릭에는 상의하상식 포라는 특성상 겹섶선에 끈고름 2쌍이 사용되었다. 끈고름은 주로 직접 달았는데, 드물게 고름걸이에 걸어서 간접적으로 달기도 하였다. 겹, 솜, 솜누비로 된 포에는 고름을 그냥 달았고, 홀로 된 포에는 옷에 달리는 쪽의 고름

부분의 나비를 반으로 접어 고름을 두 겹인 상태로 달았는데, 이는 옷도 고름도 모두 흠이므로 고름을 튼튼하게 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이주영은 직령을 옆자락의 유무에 따라 옆자락 있는 직령과 옆자락 없는 직령으로 분류하였다(이주영 (2001). *조선시대 직령(直領)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71-76). 옆자락 있는 직령은 깃이 곧고, 옆선에 1폭-1폭 반 정도의 별도의 천을 붙여 안주름, 안푼주름, 밖주름을 잡거나 주름잡은 옆자락을 뒷길에 고정된 형태의 포를 편의상 지칭한 것으로, 이는 학계에서 '직령'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직령'으로 칭하고자 한다. 그런데 옆자락 없는 직령은 옆자락 있는 직령과 깃·걸섶·소매의 모양이 유사하면서 옆선에 사각형의 옆자락 대신 사다리꼴형 또는 삼각형의 무가 달려 있는 형태의 포를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옆자락 없는 직령은 옆트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학자에 따라 전자를 중치막, 후자를 주의라고 명명하고 있다(송미경 (2007). *김확(金樞)합장표 출토부식 연구*, 김확 합장표 출토부식(경기도박물관 편), p. 185). 이주영은 선행연구에서 옆자락 없는 직령이 입란 이후에 중치막·창의·주의 등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옆자락 없는 직령·중치막·창의·주의 등의 형태 상관성 및 차이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추후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옆자락 없는 직령'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옆자락'은 직령·단령·담호 등의 옆선에 달린 1폭-1폭 반 정도의 사각형의 천을 편의상 지칭한 것으로, 시기에 따라 옆선에서 안주름·안푼주름·밖주름 등으로 처리되거나 뒷길에 고정되었다.
- 3) '무'는 옆자락 없는 직령·액주름·주의·중치막 등의 옆선에 달린 사다리꼴형 또는 삼각형의 천을 편의상 지칭한 것이다.
- 4) 이중깃은 깃나비의 중간부분을 꼬집어 박아 이중깃 선을 넣은 양식으로서, 착용시 깃이 처지거나 겹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형태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이중깃 양식은 주로 깃나비가 넓은 경우에 사용되었고, 깃나비가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이주영, 권영숙 (2004). 직령의 부위별 형태 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 *服飾*, 54(5), p. 120).
- 5) 소매모양은 편의상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착수형은 소매의 가장 넓은 부위의 배래선이 진동점을 넘지 않는 유형이고, 콩각지형과 광수형은 소매의 가장 넓은 부위의 배래선이 진동점 아래로 내려오는 유형인데, 콩각지형은 진동 위가 파지지 않은 유형이고, 광수형은 진동 부위가 파진 유형이다. 여산송씨 일가 묘에서는 광수형 소매의 포는 출토되지 않았다.
- 6) 진동술은 길과 소매가 만나는 술기이고, 최대소매통은 소매통이 가장 넓은 부위의 치수를 말한다.
- 7) 삼각부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옷에 달리게 되었다. 즉 착수형과 콩각지형 소매는 옆선과 소매배래 사이의 각도가 직각에 가까우므로 활동시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삼각부를 달면 그 각도가 완만해져 찢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광수형의 소매는 옆선과 소매배래의 각도가 거의 나란하여 활동시 찢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삼각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삼각부를 다는 것은 겨드랑이 부위에 여유를 주어 평면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성법으로서 동작기능성을 부여한다는 실용성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복식에 폭넓게 사용되었다(위의 논문, pp. 121-122).
- 8)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 p. 141 ; 서울대학교박물관 편 (2000).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부식 조사보고서*, p. 43.
- 9) 대표적인 예는 전주이씨 탐릉군(1636-1731)의 담호이다(국립민속박물관 편 (1997). *한국복식 2천년*, p. 116).
- 10) 대표적인 예는 정원용(1783-1873)의 담호이다(앞의 책, p. 68).
- 11) 박성실 (1993).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한국복식*, 11, p. 67; 김미자 (1997). *우리 나라 포(袍)의 종류와 변천*, 한국복식 2천년(한국민속박물관 편), p. 253.
- 12) 본 액주름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걸섶이 이중섶에서 단섶으로 변화된 유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걸섶을 단섶으로 만든 유물로 추정되므로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3) 이주영, 권영숙 (2004). *앞의 논문*, pp. 110-111.
- 14) *위의 논문*, pp. 112-113, pp. 117-120.
- 15) *위의 논문*, p. 113, p. 117.
- 16) *위의 논문*, p. 114, p. 118.
- 17) *위의 논문*, pp. 121-122.
- 18) *위의 논문*, p. 122.
- 19) *위의 논문*, p. 120.